

2003. 6. 30  
제1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거창군의회 최용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용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선3기를 맞이하여 거창군의 발전을 위한 인사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군수 이하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일류국가, 일류지방정부, 즉,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거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합니다.

공무원의 경쟁력은 합리적인 인사제도와 상식이 통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사구도는 비합리적이고, 형평성이 어긋난 인사운영으로 직원들의 불만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고조되어 왔음을 군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공무원의 관심이 가장 높은 분야는 인사이고, 인사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고 형평성있게 나타날 때 모든 조직원들이 정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리라 판단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군의 잘못된 인사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하오니 발전적 인사방안이 수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 상위직급에 대한 승진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도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사의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감한 개혁작업을 실시한 결과,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현실을 보면 군청산하 일반직공무원 419명 중 46%를 차지하는 행정직에서 사무관 정원의 79%인 22명을 독점하여 타 직렬간의 형평성 문제로 직원상호간 불신과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외받고 있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인터넷 등을 통해 강력히 표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행정직 위주의 사무관 승진은 관선시절부터 기술(전문)업무의 경시풍조와 함께 군정에 대한 균형감각을 잃고 행정직 위주로 군정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승진임용 과정을 살펴보아도 인사부서와 인사위원회의 관계자 또한 행정직과 업무의 연관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독점적 역할 속에서 본청의 주요 보직에 근무하는 6급 행정직만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구도가 고착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사무관 19개 자리를 거의 행정직에서 독점하는 인사의 편향성이 우리군에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나마 최근에 토목직이 정원대비 상위직급 승진에 형평성을 찾아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특성을 감안하고 조직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직 사무관이 2~3명 정도, 세무직 등 기타직렬에 1~2명 정도의 사무관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직렬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의욕을 갖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와 “인사가 만사다”라는 인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군수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상위직급 인사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는 기타직렬의 사무관 승진 정원확보와 인사부서의 타직렬 직원근무 등, 군수의 관심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 인사운용에 대한 개선방안입니다.

직급, 직렬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의 인사운용과 관련해서 우리군 본청 6급을 기준으로 보면 단일직렬 35명, 복수직렬이 16명으로 총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사의 신뢰성확보와 조직의 일체감 조성을 위한 직위공모제는 희망부서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 확보 등 능동적인 참여로 인사불신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인 제도라고 생각되어지나, 본청 6급 복수직렬의 자리를 행정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직만이 직위공모제에 참여한 후 복수직렬의 격무부서 자리에 다시 전보조치를 하는 것은 타직렬의 본청 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6급주사에 대한 직렬별 형평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직원 상호간의 불신과 인사불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직위공모분야에 타직렬도 일정부분 참여하여 전 공무원이 군정에 함께 참여한다는 동질감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직위공모제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며, 인사에서 소외받고 있는 운전직, 기능직 등에 대해서도 상위 직급의 자리를 확보하여 조직원으로서의 동질감을 회복시켜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란 말이 있듯이 공무원의 최대 관심분야인 군 인사의 투명성과 형평성이 보장될 때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거창의 군정목표가 조기에 실현될 것이라 본 의원이 생각되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은 군정에 대하여 소외됨이 없이 모두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존재할 때 우리군이 경남에서 가장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지난 시기에 잘못된 인사관행에 대하여 자기 성찰의 반성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인사개혁을 통한 공정한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인터넷 등에 인사로 인한 비방의 글들이 사라져 가는 우리군의 인사,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형평성 있는 효율적인 인사운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